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본부동창회 주
최 대망의 용마바둑대
회에서 제16회·24회·29
회가 각각 중·장·청년
부에서 '왕중왕'에 등
극했다.

제16회는 제12·
13B·13A·15회를, 제24
는 제18·22·23·19회를,
제29회는 제30·27·28·25
회에 각각 차례로 이겨
'천하통일'의 위업
을 세웠다.



제 16·24·29회 우승 '천하통일'

본부 1회 용마바둑대회 "대성황"

준우승 제13회A·18회·28회 차지 京釜 등 전국서 선수·응원단 280여명 참석

아마5단이 3명이나 건재한 중년부 제16회는 지난 6월 10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동창회장이 정할 제1회 용마바둑대회 결승대국(4회전)에서 제15회를 3-2로 눌러 4전전승(총승수 14)으로 녹색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준우승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3승1패(총승수 14)의 전적을 세운 제13회A가 차지했다.

▶ 2·4·5·8면에 관련기사

장년부는 제24회가 제19회에 3-2로 이겨 통산 4승(총승수 14)으로 우승했고, 3승1패를 세운 저력의 제18회(총승수 10)가 준우승에 머물렀다.

청년부는 제29회가 제25회를 3-2로 물리쳐 통산 4승(총승수 13)을 올려 패권을 쟁취했고, 3승1패를 기록한 패기의 제28회(총승수 13)가 준우승을 지켰다.

이날 제16회(선수: 강원경 김충길 박중

봉 오세규 이채언)는 1회전에서 제12회를 3-2, 2회전에서 제13회B를 5-0, 3회전에서 제13회A를 3-2, 4회전에서 제15회를 3-2로 각각 물리쳤다.

제24회(선수: 신병식 유병우 이영재 정용기 최명진)는 1회전에서 제18회에 4-1, 2회전에서 제22회에 3-2, 3회전에서 제23회에 4-1, 4회전에서 제19회에 3-2로 각각 이겼다.

제29회(선수: 강성훈 김대욱 김영훈 석기 조운제)는 1회전에서 제30회에 4-1, 2회전에서 제27회에 3-2, 3회전에서 제28회에 3-2, 4회전에서 제25회에 3-2로 각각 승리했다.

특히 대국 중 강철민 프로8단은 6명의 동문들과 지도다면기를 벌여 흥미와 시선을 집중시켰다.

시상 후 거행된 단합회에서 선수·응원 동문은 축배를 들며 우정을 더욱 다졌다.



용마바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앞서 오전 10시 24개팀 선수 120명과 응원동문 160여명 등 모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조대제 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개회식 격려사를 통해 "본부동창회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용마바둑대회가 용마가족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사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더욱 성황을 이뤄 동창회 발

"동창회 발전 중심축역할 기대"

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행사로 활성화되게끔 성원을 쏟아"고 말했다.

대회는 조 회장을 위시한 본부 회장단과 용마바둑회 강철민 고문(11회·프로8단) 및 한병조 회장(13회·본부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부산·서울을 비롯한 울산 창원 마산 진주 거제 대구 포항 대전 등 전국에서 참석한 선수·응원동문 등으로 대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은 백승이 용마바둑회 총무(27회·아마5단)의 사회로 대회본부 관계자 소개에 이어 한병조 바둑회장 대회사·조대제 본부회장 격려사·강철민 바둑회 고문 축사·특찬금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위: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린 제1회 용마바둑대회 대국. <아래>: 제16회(첫번째)·왼쪽 한병조 용마바둑회장, 제24회(가운데)·왼쪽 조대제 본부회장, 제29회 대표(왼쪽 강철민8단)가 우승기 등을 받고 기념촬영.

월드드림투어(주)

대표전화 468-0025

(중앙동 지하철역 17번 출구)



용마인의 여행사 월드드림투어 창사 1주년



대표이사: 박영호 (34회) 고문: 김화옥 (14회)
전무이사: 황용민 (34회)

가을 신혼 여행
예약 접수중

필리핀

보라카이	5일	899,000원
세부	5일	999,000원
플랜테이션	5일	1,250,000원
필라리조트	5일	1,250,000원

중국

북경	4일	599,000원
북경, 백두산	6일	899,000원
백두산, 고구려유적지	6일	950,000원
상해, 항주, 소주	4일	429,000원

일본

대마도	3일	399,000원
오사카	3일	399,000원
벳부 특급은천	3일	699,000원
오사카, 나라, 교토	3일	749,000원

특별할인 항공권

마닐라	580,000원	▶ 500,000원
상해	360,000원	▶ 325,000원
오사카	360,000원	▶ 299,000원
후쿠오카	250,000원	▶ 200,000원
큐슈레일패스	₩ 220,000부터	
비블 워복	140,000부터	

시 평



강철민

제11회·전문기사 8단
본부 용마바둑회 고문

용마가족 유대 및 조직 활성화에 열정을 쏟고 있는 본부동창회가 최근에 용마동산대회 등 몇몇 이벤트를 개발해 저력을 과시하더니만, 이번에는 숙원 중의 숙원인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를 열어 동창회 핵심 축제의 하나로 부상시켰다.

이 같은 축제가 출범의 뜻을 올릴 수 있음은 의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예가 된다.

이는 조대제 회장을 사령탑으로 하는 본부회장단의 잠재력 발휘와 본부용마바둑회 한병조 회장 등 집행부의 차질 없는 계획·추진, 각 동기회 용마가족의 적극적인 성원이 하나로 응집된 결과이다.

'기득호우(棋得好友)'란 말이 있다. 즉 바둑을 덤으로써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말이다. 이번 본부동창회 대회를 통해 전에 바둑으로 알던 동문들을 오랜만에 만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연령 차이가 많아 동문인 줄 모르고 기원에서 같이 바둑을 두던 사람들도 이번에 동문임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장면도 여기저기에서 연출됐다.

요즈음에는 바둑텔레비전과 사이버바둑, 전국 규모의 고교 동문대항바둑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용마대표들이 출전해 성적이 여의치 않음을 보고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곤 한다.

본부동창회는 부산에서 오는 가을쯤에 개인전을 한다고 하니

무한한 잠재력 투영

본부주최 제1회 용마바둑대회 성과

지난 6월 10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중앙바둑센터에서 막을 올린 제1회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는 부산에도 250여명이나 되는 넓은 대국장이 있으며 300명에 가까운 동문들이 참석해 기량을 과시했다는 점 등으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대성공'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용마가족은 학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야구와 예능면에서 특출한 재능을 발휘해 왔다. 특히 바둑에서는 용마출신 전문기사가 4명이나 돼, 모교는 전국에서 총암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문기사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다.

재경 용마기우회는 20여년간 바둑대회를 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본부동창회 사상 첫 '용마바둑대회'의 규모와 열기는 서울에 못지 않음을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 이 대회의 발전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바둑의 장점으로 옛날부터

좋은 선수가 선발되리라 믿는다. 이를 계기로 본부동창회는 부산이나 서울 아니면 그 중간쯤인 김천 직지사 근처에서 1년에 한번씩 부산과 서울 대표선수들이 모여 전국고교동문바둑대회 출전선수선발전을 개최하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유수부정선(流水不爭先-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아니한다)'이 있다. 바둑에서 이 말의 전력적 의미는 자기진영을 잘 정비해두면 틀림없이 남에게 허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그 허점을 찔러 승리를 거두자는 뜻이다.

조금은 소극적인 전략 같아도 가장 보편적이고 조직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국 전에 이 말을 되뇌이면 급히 서두르지 않는 유연한 바둑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용마가족의 단합과 끈끈한 우정을 일깨워준 제1회 용마바둑대회를 마련해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사를 드린다.

집념의 龍馬, 日서 문화재 환수

천신일 동문, 문인석 등 밀반출70점 교섭8개월여만에
세종옛돌박물관 설립... 기념식 갖고 일반인에 공개



루(70)를 끈질기게 설득해 그 중에 70점을 돌려받는데 성공했다. 세종옛돌박물관에서 공개된 70점의

클로즈업

우리의 귀중한 옛돌조각품을 보존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한 용마의 집념이 일본에 밀반출됐던 옛 문인석·동자석 따위의 우리 석조문화재 70점을 고국 품에 안기게 해 화제다.

한일 양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은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천신일 동문(15회·세종 회장·사진).

세종옛돌박물관 관장이기도 한 천 동문은 지난 7월 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박물관 청사에서 지난 6월 13일 일본

에서의 행사에 이어 '일본 유출 문화재 환수기념식'을 거행했고,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들 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천신일 세종옛돌박물관장은 기념식에서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석조유물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세종옛돌박물관이 테마박물관으로서 명성을 떨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동문이 이 같은 행사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석조문화재 200여점을 소장해온 일본 기업인 구사카 마모

'돌아온 문화재'는 조선시대 초기~후기의 문인석과 동자석 등으로, 이 가운데 16점은 사재를 털어 사들이고 나머지는 기증받은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천 동문은 "우리 문화재는 우리 품에서 보존되고 다시는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나 국민이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아직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 속의 우리 문화재를 환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환(17회)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박용환 동문(17회·한양대 건축과 교수·사진)은 최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

2001년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한양대 건축과 교수동문회 회장이기도 한 박 동문은 한양대 졸업 후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도쿄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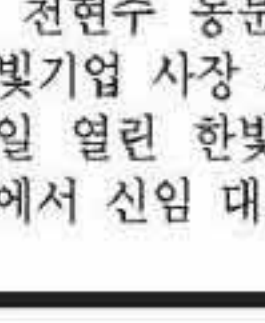
서경석(20회) LG투자증권 대표이사



서경석 동문(20회·사진)은 최근 열린 LG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이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서 동문은 LG투자증권에서 잔뼈가 굵은 LG맨이다.

천현주(20회) 한빛여신전문 대표이사



천현주 동문(20회·사진)은 한빛기업 사장 게임 중 지난 6월 2일 열린 한빛여신전문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천 동문은 한일은행 경영혁신실장·신탁증권부장·한빛은행 집행이사 겸 기업고객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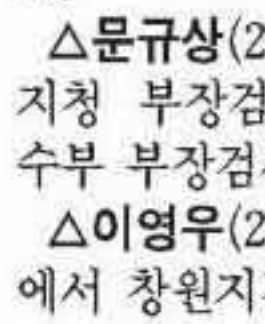
김수민(26회) 포항지청장 김인호(28회) 부산지검 2차장 중견검사동문 8명 영진



최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김수민 동문(사진 위)과 김인호 동문(사진 아래)이 각각 대구지검 포항지청장과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탁되는 등 8명의 중견검사 동문이 영진, 지난 6월 14일 일



제히 취임했다. △김수민(26회)=서울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으로.



△문규상(27회)=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에서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이영우(27회)=서울고검 검사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으로.

△김인호(28회)=제주지검 차장

검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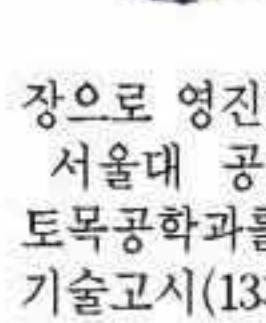
△옥준원(28회)=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검사에서 인천지검 조사부 부장검사로.

△이춘성(28회)=서울고검 검사(헌법재판소 파견)에서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5부 부장검사로.

△조한욱(29회)=사법연수원 교수에서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노동표(34회)=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에서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로.

남인희(26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남인희 동문(26회·사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 중 지난 6월 16일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공대와 경희대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남 동문은 기술고시(13회)에 합격한 이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험실장·국립지리원 측지과장·대통령비서실·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 교통신설국장·건설지원실 건설기술심의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중고동창회 용마바둑회 회장단 명단

인사말씀

6월 10일 제1회 동창회장기쟁탈 용마바둑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동문 애기가 여러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기대회는 11월 25일 용마바둑회집배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부 용마바둑회 회장 한병조

회 장
한병조(13회) 부일합동법무사사무소 051-255-0008, 017-840-4119

수석부회장
문운용(14회) 한국셀섹유(주) 051-625-5133, 011-236-9440

부회장
강행남(17회) (주)케이스틸 051-311-8877, 011-593-2509
송인철(18회) 부산의료원 산부인과 051-866-9031
정상건(23회) 정상건설사과의원 원장051-202-1363, 011-853-4181
백승엽(27회) (유)영진 051-316-6331, 016-548-7464

감 사
김수경(21회) 대동벽지(주) 051-808-1331, 017-552-4264

이 사
각 기별 기우회장(결성이 안된 기수는 동기회장)

총 무
임강택(22회) 중앙바둑센터 051-466-6898, 011-833-5479
백승이(27회) 한국기원부산본부 051-754-5240, 011-848-5240

※ 매월 첫째 토요일 3시부터 정기적으로 임원진 천선바둑 모임을 개최하오니 뜻있는 회원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십시오.
※ 각 기별 기우회에서는 회원명단(성명, 급수, 주소, 전화 등)을 백승이 총무(27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3-5 대한통운빌딩 6층(중앙바둑센터 내)
전화 : 051-466-6818

“조직 활성화 새로운 전기로” 울산, 사상 첫 체육 한마당



울산지역동창회 1회 체육대회의 줄다리기(위)와 부인 이어달리기.

가족동반 280여명 신바람
종합우승 홀수기 4승1패

울산지역동창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동문·가족 체육 한마당을 펼쳐 조직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울산회는 지난 6월 6일 울산상고 운동장에서 동문 150여명과 가

에사 개최돼 한없이 기쁘다” 고 말했다.

이날 종합우승은 야구 등 5개 종목에서 4승1패를 기록한 홀수기가 차지했다.

홀수기는 짝수기와 맞서 야구 9-3, 축구 2-1, 족구 2-1, 줄다리기 2-0으로 각각 이겼으나 1000m 부인이어달리기에서 패했다.

이날 야구에서는 김광국 동문(37회)이 최우수선수상을, 신승우 동문(39회)이 감투상을 받았다. 또 축구와 족구에서는 각각 박남식(22회)·심풍수 동문(30회)이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특찬금 감사합니다”

△본부동창회(회장 조대제·7회)·금일봉 △제14회동기회 산악회(부산)·10만원 △현대중공업회·30만원 △김성규(10회·울산 수석감사)·20만원 △박세종(12회·세종공업회장)·100만원 △한수길(14회·롯데제과 사장)·30만원 상당 롯데파자류 △진영천(2회·벨젠통기기사 사장)·50만원 상당 타올 200장 △박홍조(22회·삼우교통 사장)·100만원 상당 티셔츠 200장 △김인수(35회)·100만원 상당 처방용 시트 20세트.



철십고개를 앞둔 제6회 '노병'들의 배내골 아우회 기념촬영.

“청춘을 돌려다오” 재충전아우회 古稀 앞둔 제6회 30여명 배내골서 모여

동창회 발전을 위해 50년간 헌신하다 고회(古稀)를 맞게 된 용마들이 “청춘을 돌려다오!”를 열창하며 재충전에 나섰다.

제6회동기회는 지난 6월 3일 경남 양산시 원동 근교 배내골 '영남알프스'에서 단합회를 열고 '실버청춘'을 구가했다(사진).

임경택 회장을 비롯, 31명의 '노병'들은 한우 생갈비구이에 소주잔을 나누면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을 강조하고 낙천적으로 살 것을 다짐했다. 그래서인지 일행은 노래방에서 춤과 노래

를 즐기는 바람에 한때 부산행도 잊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밀양에 사는 김두철 동문이 오랜만에 참석해 반가움과 유쾌함이 더했다.

제9회 신입회장 배종태 정기총회 50여명 참석

제9회동기회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월드뷰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배종태 동문(김해시의회 총무위원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종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배종태
△부회장=김영국 문정덕 윤일명 이상출 한동대
△감사=김종호 신도수
△총무=최성욱.

각종행사 내실화 도모 가족동반 위주로 추진 제12회 이사회 개최

제12회동기회 올해 첫 이사회가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구 서대신동 '동경초밥'에서 단합회를 겸해 열렸다.

남기용 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에는 30여명이 참석, 조직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올해 동기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각종 행사 참여 극대화 △아우회 등 행사 가족동반 위주 추진 등에 뜻을 쏟기로 했다.

장학기금 운용 등 논의

본부 회장단 간담회... 회보축쇄판 2집 곧 출간

본부동창회 회장단 올해 2차 간담회가 지난 6월 22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내어초밥'에서 열려 상반기 주요행사 및 사업보고에 이어 장학기금 운용 방안과 회보축쇄판 제2집 제작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조대제 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박동렬(8회) 정행권(9회) 박한복(9) 강진평(10) 한병조(13) 한규환(14) 남진현(19) 박기욱(23) 서영수(23) 서정대(24) 김태우(27) 최거훈(30) 권종수(31) 박명진 부회장(33) 최득호 사무국장(11) 김병수 총무(22) 등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최득호 사무국장(11회)은 주요의안 논의에 앞서 △본부 38차 정기총회(2001년 3월

14일) △제12회 기별남시대(4월 22일) △홈키밍데이행사(15회 40주년·25회 30주년·35회 20주년) △제2회 기별등산대회(5월 27일) △제26회 용마테니스대회(6월 3일) △제1회 기별대항 용마마독대회(6월 10일)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해 보고했다.

사업별 지출규모 하향조정키로

본부 장학회 이사회... 기금 과실금 감소 대책 강구

본부 용마장학회 올해 제2차 이사회가 지난 7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내어초밥'에서 열려 금리인하에 따른 장학기금 과실금 수입감소 등 현안문

제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 있는 동기회사무실에서 김계곤 은사 초청 '한글가꾸고 지키기' 좌담회를 개최한 후 사은회를 베풀었다.

이동식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이 회장과 김경희 동

김계곤 은사 초청 '한글가꾸기' 좌담회 제9회재경동기회, 사은회 열고 노래자랑도

문(재경동창회 고문)을 비롯, 20여명이 참석했다.

은사와 제자들은 좌담회를 마친 후 근처 '초동복집'에서 '사은의 밤'을 갖고 학창시절의 추억을 일일이 캐내면서 늦게까지 독창과 합창을 열창, 정을 듬뿍 나눴다.

금 과실금 수입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모교 야구부 운영 등 장학사업의 지원규모를 하향조정하는 등 장학기금의 내실화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에 대해 장학기금의 각 부분별 지출규모를 수입규모에 맞춰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조정의 불가피성을 확인했다.

2001년도 제17회 동기회 집행부 명단

회장 정해전

부회장

김동수 김백수 김종대 김준위 김창운
성윤환 손성근 신 종 심문섭 우기남
윤성욱 이승구 이종길 이종덕 장정용
장희행 정동길 정해표 정형근 조중언
허진호

당면직이사

강주수 김대성 김무부 김상천 김성오
김영전 김준연 김지창 문석용 박가식

동기회사무실 개소식 안내

일시 : 7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 중앙동 해양병원건물 501호

박청홍 서정승 송수웅 이진우 이기일
이범열 정연희 정량부 최만식 최성호
하영수 황수길

이사

강우훈 강행남 강호일 권경술 김병문
김성락 김승현 김시영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정수 김주영 박도원 박신도

박영두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홍식 배민부 서용규 서창석 송인문
안정의 양춘길 여성열 오태식 옥영관
윤명수 이국남 이선형 이성훈 이성흠
이일영 이재두 이종혁 이형우 장승구
전영명 전경명 정선홍 조용운 주상환
천용광 최세욱

총무

강주수 전성광

감사

정량부 윤성욱

제17회 '사랑방' 개소식
7월 21일 선원회관 501호서

제17회동기회 '사랑방'인 전용 사무실 개소식이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선원회관(해양병원) 501호 현장에서 열린다.

많은 동문들의 축하 속에 정해 전 회장 주재로 개소될 이 사랑방은 앞으로 매일 오후 1시부터 문이 열린다.

제21회 재경회장 박영욱

제21회재경동기회는 지난 4월 26일 오후 7시 서울 무역센터 52층 '바이킹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영욱 동문(SK 구조조정 추진본부 상무이사)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고침 : 회보 제323호(2001년 4월 23일) 5면 기사 중 '제21회 회장 전경수'는 '제21회 회장 박영욱'의 잘못이기에 착오 없길 바랍니다.

"취미서클 다양화 등
조직강화에 최선"

제25회 회장 제영성

제25회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월드뷰페'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영성 동문(제영성내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조광도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전년도 결산보고와 올해 예산안, 홈커밍데이행사 결산보고 등 주요의안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개설했다.

제영성 신임회장은 취미서클 다양화 등 조직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회장=제영성
△감사=김상수
△총무=옥동훈(홍보) 여성조(재무) 최동하(섭의).

제31회동기회 홈페이지
다양한 메뉴로 쇄신

제31회동기회(회장 정철수)는 종전에 사용하던 홈페이지(www.31k.pe.kr)를 폐지하고 www.kn31.pe.kr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새 홈페이지는 △본부동창회 및 동기회 소개 △동기회조직표 △어디서 무엇을 △자유게시판 △Humo&Human △동기회앨범 △추천사이트 △시사&상식&정보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환영 단합회 열어
대전, 용마가족찾기운동 전개

총회서 김덕수(19회) 회장선임

대전지역동창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 대전 유성구 '홍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덕수 동문(19회·전자통신연구원 총무부장·사진)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정윤모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승인했고 운영위원 13명과 김대업 산악회장(20회) 및 유봉 테니스회장(27회)을 선임했다.

김덕수 신임회장은 "앞으로 조직 활성화와 동문 유대강화를 위해 미참여 동문 발굴운동 전개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동문들은 지난 4월 12일 사학연금회관 '이화원'에서 특별강연차 대전을 방문한 김영삼 전



김영삼 전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대전지역동창회가 마련한 환영 단합회에서 후배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고父子겹동창회' 재미 솔솔

박문기 회장(12회)등 20명 네번째 모임
재학 아들이들 예비용마 담금질

녹음 짚은 모교(경남고) 교정에는 지금, 지난 날 '청운의 꿈'을 펼쳤던 아버지의 이상을 좇아 대(代)를 잇고 있는 '예비용마' 20명의 "후라 경고!" 함성이 사자후(獅子吼)로 용솨음치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들후배와 열정을 바쳐온 아버지선배의 광장인 '부자겹동창회'가 탄생했다.

김성찬 교장(12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난해 8월 출범한 '경남고부자겹동창회'는 지난 7월 10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어빈'에서 네 번째 모임을 갖고 끈끈한 정을 재확인했다.

이 모임은 박문기 회장(12회·대방산업 대표·사진)과 김학현(15·건설업 대표) 김진영 부회장(22회·변호사), 류홍석 총무(24회·F&F 대표)등 집행부의 줄기찬 추진력으로 기틀이 튼실하다. 현재 회원은 제12회부터 제31회까지 모두 20명.

박문기 회장은 "지난 5월 세 번째 모임에서 앞으로 정례회는 '겹동창회'의 '겹'의 뜻을 살리기

대통령(본부고문·3회)을 위한 단합회를 열고 축배와 정담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했다.

△회장=김덕수(19회) △부회장=김대업 김찬만 유재형(이상 20회) 김성수 김용화(이상 21회) △감사=이명훈(23회) △총무=김성래(24회) △재무=정영식(28회).

위해 '격월 둘째주 화요일'에 열기로 했다"며 '부자동문들이 함께 참석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겹동창회의 부자동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문기(12회)·기홍(3년) △장영길(13회)·동진(2년) △김학현(15회)·주현(2년) △류지영(15회)·인선(2년) △이행남(15회)·상백(1년) △이웅만(19회)·윤재(3년) △장준식(20회)·익준(3년) △김진영(22회)·범준(1년) △송영춘(23회)·윤근(3년) △서보호(24회)·전석(3년) △류홍석(24회)·성범(3년) △김영만(24회)·진우(1년) △김경태(26회)·수용(3년) △백성운(27회)·승엽(2년) △김원홍(28회)·영호(1년) △박병준(28회)·근태(1년) △신화식(29회)·준호(1년) △김재철(30회)·동진(3년) △정철수(31회)·의운(3년) △이민수(31회)·동규(1년).

모교 장학사업 큰 보람

△화천회(회장 김판열)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도초방'에서 제113차 월례회(회장 등 18명 참석).

특히 정창환 동기회장은 강무상 총무와 조일량 동기회관 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김판열 화천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번 홈커밍행사에서 수고를 많이 했던 경남고 재임 김종태 동문에게 박수로 격려.

앞으로 화천회는 모교 장학사업(매년 100만원 전달)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

회원 100%참석 결속 과시

△가람회(회장 김승일)는 지난 6월 11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천동 '제일뷰페'에서 부부동반 월례회.

이날 모임에는 김승일-현인혜 부부를 비롯, 동문 9명 전원과 부인 8명이 참석.

1회 용마바둑대회 3위

△1.5기우회(회장 이추남)는 지난 6월 10일

15회 직능·지역회 단신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1회 용마바둑대회에서 3위(중년부 4전2승2패) 입상.

출전선수는 서울의 나정연 이정형, 부산의 김삼용 윤상준 허두영 동문 등 5명.

이날 재경 보름기우회 이승우 회장과 최태저 총무, 1.5기우회 이추남 회장과 정창용 총무 등 16명 응원.

특히 이날 이승우 재경보름기우회장과 정기문 전 동기회장이 금일봉을 쾌척, 기우회 발전의 활력소가 됐다.

회원 적극 참여·협력 결의

△사학회(회장 김창구)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백꽃불갈비집'에서 제37차 월례회(권승부 동문 등 16명 참석).

김회장의 특찬금과 양주 2병이 놀이한마당의 '종자'로 활용됐다.

중국 임종구 부인 참석

△3.8회(회장 최병우)는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초량동 '봉운뷰페'에서 제40차 월례회(강용규 등 동문 13명·부인 7명 참석).

정창환 동기회장은 강무상 총무가 배석한 가운데 격려사에 이어 금일봉을 전달, 홈커밍데이행사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사를 표했다.

특히 중국 광둥성 동원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종구 동문의 부인 김옥수씨가 참석해 뜻을 깊게 했다. 노래방에서 뒤돌아도.

용마등산대회 종합 2위

△1.5산우회(회장 정종호)는 지난 5월 27일 열린 본부동창회 용마산악회 주관 제2회 등산대회에서 종합 2위 차지(코스 풍아대하단 캠퍼스~승학산~구룡산~엄광산~경남고).

이날 대회에는 서울의 박호문 동문을 비롯, 모두 16명(부인 2명 포함) 출전.

특히 용마산악회 정준수 부회장이 30만원, 정종호 1.5산우회장·이승남·박찬호 동문이 각각 10만원을 협찬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재경 경팔회 단신

윤태영·김진희 우승
도고CC 골프대회

재경 경팔회(제8회재경동기회·회장 전영배)의 골프모임인 잔디회는 지난 6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도고CC에서 제100회 및 제101회 월례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창근 회장이 주재한 이번 대회에는 26명이 참석.

▷남자부 우승=윤태영·준우승 노재복·3등 추경석·4등 문창화·5등 김호석·6등 김영기·7등 홍기성·8등 지창수·니어리스트상 정진수·행운상 전영배 동문.

▷여자부 우승=김진희·준우승 이정자·니어리스트상 양춘제·행운상 전은희씨.

특히 추경석 동문은 100회 남녀 우승자를 위해 프랑스제 크리스탈 우승컵 2개를 기증했다.

또 김호석 박재범 배우원 이유환 이창근 유문자(고 김한진 동문 부인) 지창수 추경석 홍기성 동문이 특찬을 했다.

6월 바둑우승 배우원

1착 이유환·펼지 강성태

팔선회 6월 바둑대회가 지난 6월 2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이유환 회장 주재로 열려 배우원 동문이 우승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유환 회장이 회장답게 제일 먼저 도착했고, 다음으로 이창근 윤태영 전영배 배우원 신현주 이종수 손대근 조직계 동문이 차례로 나타났다.

강성태 동문은 "차가 어찌나 밀리는지 혼났다"며 펼지로 자리에 앉았다.

여름해변캠프 등 논의

제26회 6월 월례회

제26회동기회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천동 '범천면옥'(허갑석 동문 운영)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30여명이 참석, 여름해변캠프 운영 등 조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바로 잡습니다

회보 제324호(2001년 6월 7일) 2면 '조정민(24회)'의 '24회'는 '23회'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동/학/교/동/창/회

손주도 할배·할매와 춤을

제10회 야유회
70여명 참석



제10회동기회는 지난 6월 3일 오후 구덕산 기슭 대신공원 자락의 '산정농원(13회 이범경 동문 운영)' 잔디밭에서 3인조 밴드까지 불러다 놓고 야유회를 펼쳤다. 김한조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부인과 손자까지 따라 나와 모두 70여명이나 '신명만마당'을 연출했다(사진).

'60대 중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바람에 언제나 젊은 기분인 이들 '노병'들은 이날도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대신동 산비탈 보리밭이 초여름 달밤만 되면 연애하는 머시마-가시나들로 쑥대밭이 됐다"는 추억담을 토해내고 소주잔과 함께 한 바퀴 폭소를 돌렸다.

한쪽에서는 "비아그라를 기죽이는 유푸리아가 곧 붉은 벽돌색으로 찍혀 나오니 기대하라"고 해박장대소. 그 사이로 최근에 타게 한 서울의 조판제 동문(전 동우해운 회장)이 고향인 울산에서 영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섞여 좌중을 잠시 숙역케 했다.

술꾼들의 노익장 과시와 함께 부인들의 노래가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한량(?)들이 우르르 무대로 나와 열창하는 호박꽃(?)들을 감싸며 백댄싱을 곁들였고 밴드 소리가 '최후의 발악'인 듯 고막을 찢고 있었다.

그러나 일행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서정철 총무가 "김해 장유계곡에서 집에 갈 줄 모르고 뺑과리 치면서 놀던 그때의 신명은 다 어디로 갔노!"하며 작별인사를 던졌다.

1회 용마바둑대회 우승 축하 남북대결 手談열고 자축연

제16회동기회 30여명 참석

제16회동기회는 지난 6월 19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중앙동 동기회사무실에서 본부동창회 주최 회장기 쟁탈 제1회 용마바둑대회(6월 10일) 우승(중년부)을 축하하기 위한 역사적인(?) 남북대결 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기우회 신태규 회장 및 이명수 총무와 박종봉 김충길 김인국 등 출전선수를 포함해 모두 30여명이 참석, 남팀(청룡 : 강서 남 동 사하서 수영 중 영도구 거주자)과 북팀(백호 : 금정 동래 북 사상 연제 해운대 거주자)으로 나눠 대국을 벌였다. 이어 일행은 대국 후 근처 '오복식당'에서 축하연을 즐겼다.

이날 권복술(20만원) 김정균(10만원) 김정직(10만원) 김형석(20만원) 송규정(10만원) 양성민 동문(10만원)이 협찬을 했다.

우승 김충길·배이영 춘계대회겸 출전팀 선발전

한편 제16회는 같은 달 6일 동기회사무실에서 용마바둑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겸한 춘계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날 A조(1~2급) 우승은 김충길·준우승 박종봉, B조(3급 이하) 우승은 배이영·준우승은 김영우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운영식 동기회장과 신태규 기우회장이 각각 10만원, 옥윤석·정성기 동문이 각각 맥주 1박스 협찬.



경남중 야구부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맹주봉은 발 아래 있었네”

'18번지 친구들' 가지산 등반기

이재일

제18회·동기회보 편집장

'18번지 친구들'이 모처럼 등산다운 등산을 했다. 무척 힘든 6시간여의 산행이었지만 해발 1240m의 가지산 정상 맹주봉을 오른 우리는 '거뜰히 해냈다'는 마음에 더없는 성취감을 맛보았다.

지난 6월 3일, 초여름인데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산꾼들을 잡는다. 우리는 '영남알프스'에서도 가장 높은 가지산 등반에 나섰다. 카라반에 나선 일행은 모두 37명(부인 6명 포함), 만만찮은 산행인데도 모두들 자신감과 기대에 찬 얼굴들이다.

오전 9시30분 호박소계곡 휴게소를 거쳐 계곡길을 걸을 때는 콧노래를 불렀지만 온통 돌밭으로 된 너덜지대를 만나면서 콧노래가 실종될 만큼 고전 연속. 부인들은 모두 잘 걸었다. 아마 초반이어서 그렇겠지 했으나 이 같은 예상은 곧 오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력은 한마디로 대단했다.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정상에

다다른 것은 낮 12시쯤. 힘은 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선 순간 한줄기 상쾌한 바람이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왔다.



가지산 등정에 성공한 '18번지 친구들'의 기념촬영.

정상부근에서 펼친 도시락 밥맛은 비길 데 없었다. 오후 1시쯤 우리는 기분 좋게 정상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기념촬영을 한 뒤 하산을 시작했다. 와이담(?)을 해가며 2시간이 넘도록 내려오니 구룡폭포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신발을 벗은 채 발을 담그고 상

쾌한 휴식시간을 가졌다.

실컷 쉬다가 버스가 기다리는 휴게소에 도착한 것은 4시쯤. 6시간 이상 걸린 산행이어서 몸은 무거웠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다. 귀가길에는 경남 양산시 상북

면 내석리에 있는 황토찜질방에 들러 피로를 푼 뒤 시원한 맥주에 저녁회식을 즐겼다.

"오늘 같은 일이 자주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50대 후반의 우리는 건강도 다지고 우의도 돈독히 하는 이런 산행을 자주 하자고 다짐했다.

경남중 야구 전국제패

부산서 열린 30회 소년체전서 금메달

'경남고 약진' 촉매제로

경남중(교장 주기민·16회)은 야구부가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했고, 농구부도 동메달을 따내는 등 결경사를 연출해 최근 '경남고 야구 부진'에 따른 용마가족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6월 5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 결승전에서 경남중(감독 노재완·38회)은 충남 태안중에서 7-6 역전승, 금메달을 따내 29년만의 전국제패 쾌거를 올렸다.

이날 7회말 2-6으로 크게 뒤져 있던 경남중은 끈질긴 승부력을 발휘한 조승수(3년)의 2루타를 신호로 연속 안타를 쳐 단번에 6-6 동점을 만들어 승기를 잡았다.

8회 연장전에서 경남중은 김유신의 역투와 철벽 수비로 태안중의 공세를 잘 막아낸 후 말공에서 2사 주자 1, 3루에 감독의 용병술로 1점을 얻어내 역전드라마를 연출, 패권쟁취에 성공했다.

농구부는 동메달 획득

한편 '우승 0순위'로 회자된 경남중 농구부는 지난 6월 4일 동아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부산 전국소년체전 농구부 준결승전에서 삼일중(경기)과 맞붙어 05초 남겨두고 실점을 허용, 41-43으로 분패, 결승티켓을 놓쳤다.

또 육상부는 높이뛰기 196Cm 기록 보유로 '금메달 확실시'의 정민욱(3년)이 훈련 중 다치는 바람에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제 29 회 동 기 회 임 원 명 단

고 문
이승호 광복패션1번지 대표
정대현 정치과의원 원장
황유명 정상천국회의원 보좌관
오경호 원산면옥 대표
윤종경 윤종경내과의원 원장
김영화 한마음의원 원장
이성렬 세방한의원 원장
정 길 건양선박설계 대표
이경호 이경호내과의원 원장
김재현 자해내과 원장
김대욱 태화마린 대표이사
이석조 관포합집 대표
한휘철 동래 한빛치과 대표원장

회 장
정유성 (주)신진택시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오세용 (주)한일전기 대표이사

부회장
강성일 새한주유소 대표
김대영 김대영치과의원 원장
김부겸 (주)팬스타 상무
김연래 공인중개사
박기찬 진흥상사 상무이사
배현호 배현호내과의원 원장
이충원 가이더공인중개사 소장

감 사
양승용 부산은행 신선대출장소장

총 무
권두진 태원상사 대표이사

이 사
강영수 광역종합건설 대표
권오영 구포 성심병원 정형외과
김광만 세운피부과의원 원장
김기영 LG정유 전주지사장
김민호 김민호치과의원 원장
김정규 경림포크레인 대표
김영훈 초하한의원 원장
김용식 세인치과 원장
김용재 러키화성
류광열 부산대 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류광현 이아센터 원장
문덕환 인제대의 예방의학과
박병률 영도병원
박병만 현대증권 구포지점장
박삼길 박내과의원 원장
박성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기 정근안과
박영환 천마 무역부
박장철 도로공사
박철환 박철환소아과 원장
백경돈 성분도병원 산부인과
배정열 배정열한의원 원장
서영학 통영세무서
서치훈 대성보세장치장 상무
송경문 신동아 회센터
송철호 성장기업
심원섭 심원섭정형외과 원장
오일준 오일준이비인후과 원장
이상용 이상용내과의원 원장
이성진 우리들병원 원장
이성우 이성우한의원 원장
이세용 이세용산부인과 원장
이용남 주례여고 교사

이정운 이정운성형외과 원장
이중희 이중희내과의원 원장
임광열 임광열성형외과 원장
장 만 동원해운 상무이사
장휘열 부산방사선과의원 원장
전진화 한겨레치과의원 원장
정성훈 정성훈성형외과 원장
조진수 조진수소아과 원장
최경보 일광상사 대표
최문섭 메리놀병원 신경외과 원장
최원택 최원택내과의원 원장
최정만 자전상사 대표
최종열 부산상대 경영학과 교수
허경도 하나콤 대표
현계성 팔도LG대리점 대표
홍택중 부산의대 내과
황맹규 자모병원 산부인과

뉴질랜드지역동창회

차준호(18회)=구명 순도, 뉴질랜드지역동창회 회장. 1월 18일 모친 별세. 4월 1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장남 결혼

제 3 회

申鉉翼=동기회 총무. (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603 선우3차아파트 807호. 055-384-4186

제 4 회

文澤尙=(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467 삼성생명노블카운티 1701호. 031-208-9356

제 6 회

金泰坤=(자택이사)부산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120동 1602호. 051-612-6326
李鍾泰=4월 26일 별세
鄭相哲=5월 6일 차남 대구에서 결혼
鄭兄錫=6월 6일 모친 별세(하동진교에서)

제 7 회

具永錄=학술원 회원. 5월 18일 숙환으로 별세
金鍾淳=5월 26일 삼보예식장에서 딸 결혼

제 8 회

朴同烈=본부동창회 부회장. 해운대성심병원장. 051-743-5555. 7월 3일 부친 별세
張喜俊=아들 유권군이 사직성형외과의원 개원. 051-502-8275
李政雨=(주)국제전기 전무이사. (사무실이전)대구시 북구 산격2동 14-58. 053-384-3000
金英鶴=(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202 무지개마을 214동 702호. 031-716-1815
李昌圭=6월 12일 대한 상사 중재원(상공부 산하)으로부터 상사 중재인(금융부분)으로 위촉
金元鎬=5월 23일 일산병원에서 담낭수술 받고 경과가 좋아 자택에서 요양중
朴相載=6월 9일 서울 흥제동성당에서 아들 결혼

제 9 회

徐豪成=4월 15일 그랜드호텔 2층 두리홀에서 장남 중욱군 결혼
金 鐘=4월 26일 부산대병원에서 투병중 퇴원
李榮福=4월 29일 부산대병원에서 퇴원
故 卍太珍=5월 5일 롯데호텔에서 장남 의경군 결혼
曹圭陽=5월 6일 성남시 수정웨딩홀에서 장녀 결혼
尹辰漢=5월 19일 사학연금 부산회관에서 아들 도수군 결혼
朴熙喆=5월 31일 침례병원 중환자실 입원중 별세
申相範=(자택이사)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86-4 금호아파트 다동 815호. 02-536-3473
許南秀=(자택이사)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LG진달래아파트 102

동 1703호. 031-456-2516
金聖鎬=(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LG빌리지 1차 117동 1403호. 031-266-7572
李哲圭=3월 24일 오랜 투병 끝에 별세
沈載範=(자택이사)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002 진도아파트 101동 506호. 02-805-7815
李先浩=(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48-7 3층. 031-907-7329
徐海亮=(자택이사)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83동 106호

제 10 회

朴野原=(주)우미씨엔디(건설 토목 리모델링) 회장.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91-4 청기와타운 1층 103호. 02-437-0234. 019-595-9567
金容元=(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9 (22/1) 벽산2차아파트 201동1601호. 051-701-0010
金仁喆=(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388 대우마리나아파트 106동 101호. 051-744-1661
金林奎=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161 (35). 051-753-5518
金在奇=(자택)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1170 (15/1). 051-271-0128

제 12 회

동기회는 서울에서 본부동창회 주최 바둑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鄭基政(재경동기회 기우 회장) 具辰雄 許在淳 동문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金章郁=거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경남지역 12회 동기회장. 055-637-3930
具廷瑞=사천시 사천읍 정의2동 340. 055-852-8752
金英坤=수산주유소 대표. 055-391-6575
朴廷浩=전 마산 합포구 지적사무소 소장. 055-224-0017
裴炳一=전 김해중학교 교감. 055-336-2148
白俊贊=전 진해수협 전무. 055-546-3636
安永圭=마산 노인병원 병원장. 055-242-7582
玉桂漢=(주)코알라 관광여행사 회장. 055-752-5733
曹永建=경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055-245-2000
崔英浩=전 경남은행 지점장. 055-244-1835
崔亨植=전 마산양덕여중 교감. 055-573-2232
許泰正=불교계. 055-323-5167
金喆基=동기회 기우회 회장의 소임을 이번 동창회 바둑대회 때 심분 발휘하여 동문 상호간 유대강화와 애정어린 단합회식 주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金鍾源=대구·경북지역 동기회장으로서 항상 수고가 많고, 이번 6월 월례회(6월 8일 수성구 삼강초밥)때 회원 소집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俞炳璠=동기회 기우회 고문으로서 동창회 바둑대회 때 수고가 많았습니다
李相珍=6월 23일 서울 상도동 성당에서 차남 결혼
鄭棟植=동기회 테니스회 회장으로서 동창회 테니스대회 때 수



고가 많았습니다
鄭鎮泰=동기회 기우회 총무로서 동창회 바둑대회 준비, 소집 때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13 회

具德建=6월 16일 오후 2시 마산동부교회에서 차녀 진하양 결혼
金光澤=6월 13일 모친 별세
崔明哲=6월 14일 부친 별세
張篤秋=(자택)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2단지 205동 901호. 051-293-0759

제 14 회

具滋信=성광전자(주) 대표이사. 055-380-0700. 6월 11일 부친 별세. (자택)051-582-0399
崔忠洛=한영폴드체인 상무. 055-322-7042~5. (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408 강변신익1차아파트 107동 409호. 051-206-5801
黃俊性=보민당약국 대표. 051-324-0051. 6월 18일 부친 별세. 051-324-0051
李孝根=6월 21일 모친 별세. (자택)051-627-4967
金承治=ALTWELL(주) 초립상사 대표.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84 금정빌딩 2층. 051-853-6380~4 (자택)051-338-2498
金德幸=청마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5-8 삼양사빌딩. 051-468-4788~9. 창원사무소(창원세관 관할) 개소. 055-275-4758~9. 팩스 055-275-4285 경남 창원시 상남동 69번지 덕산베스트텔 1214호

제 15 회

鄭永善=(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759-3 한신학원 4층. 051-292-8716
金基平=중앙공인 중개사 사무장 취임. 051-256-9856. (자택)051-291-7236
李東根=6월 16일 김해 중앙교회에서 장녀 현숙양 결혼
孫正政=6월 13일 동래 현대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1남1녀가 있음.

제 16 회

金炯碩=부산인론인클럽 기획사무처장·(주)동방인쇄 부사장. 051-636-9477. 3월 14일 본부 제 38차 정기총회에서 제9회 용마대상 수상(회보 제322호 참조)
李孟立=동부화재보험 다전대리점 대표. 051-464-6875. 동기회사 무실에 등글의자 5개 제공
池秀信=태광산업(주) 상무이사

겸 울산공장장. (자택)울산시 남구 야음2동 동부아파트 305동 2001호. 052-265-6519
金良元=(주)과학조선 대표이사. (자택전화변경)051-915-4330
張相進=동신종합건축사무소장. (사무실이전)부산시 동구 초량3동 연합빌딩 702호. 051-441-3663~5
金正直=경도상사 대표. 금사동공장 처분하고 사무실 개업.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84-12. 051-758-2689
金英漢=(주)해태유통 회장. 02-428-0415. 업무차 하부시 동기회 사무국장 환담. 격려코 상경
卞相明=덕형건축설계사 대표. (사무실이전)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24-27. 051-291-2074
姜永錫=대영수출포장 대표. 055-385-0095~6. (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태원아파트 104동 804호
심무웅=승리감리교회 목사. 051-208-1096. (자택)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3-3 우림그린맨션 101동 101호. 051-291-5014
李明洙=(자택이사)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839-7. 055-931-2273
金政鎬(주)경국 대표이사. 051-463-9760~3. 5월 19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아들 지운군 결혼
金政夫=(자택이사)경남 마산시 창포동 경남맨션 2동 605호. 055-248-5780
李近永=풍년상회 개업.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1가 66-1. 051-418-8786
玉連洙=거제Hits 대표. 051-245-5387. (자택전화변경)051-247-1714
尹永植=동기회장. (주)세동 대표이사. 055-382-0601. 6월 5일 밀양시청대강당에서 열린 밀양문화원주최 순국선열 석정 윤세주 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함
鄭信克=(주)세명단조공장장겸 이사. 경남 김해시 생림 나전리 691. 055-323-8151
梁聖燾=조광페인트(주) 대표이사. 051-304-7741. 6월 9일 부산시문화회관에서 딸 경아양이 2001년 우수신인연주가초청연주바이올리스트독주회를 가짐
嚴柱益=캐나다에서 업무차 일시 귀국. 동기회사무실 방문 및 일육회 6월 정기대회에 참석코 부인 애니엄씨 명의로 협찬금 300,000원을 일육회 차상영회장에서 전달
吉正道=아세아냉장(주) 부사장 취임. (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20 현대아파트 109동 2105호. 051-265-6029
崔英旭=최영옥산부인과의원장. (병원이전)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2000-2. 051-866-0001~2
金彌勒=캐나다에서 사업정리하고 귀국. (자택)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0-14 청산빌딩 5층. 051-463-2237
朴 弘=6월 23일 당리동신교회에서 차녀 은희양 결혼. 051-293-0848
辛泰圭=(주)코리아나여행사 대표. (사무실이전)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152-3 서면전자랜드 옆. 051-247-6885. 051-816-8721
李成珪=5월 31일 지병인 당뇨병

악화로 별세
제 18 회
安昌範=동의대 한방 병원장. 051-850-8610
李香雨=롯데주차장 개업. 범일동. 051-632-5096
朴貴煥=하얀풍차 경양식집 개업. 안락로터리. 051-528-6219
康秀哲=울산 강내과의원 원장. 052-244-1110
金 浩=울산교육청 장학사. 052-270-3715
박덕봉=(주)대원S.C.N 대표이사. 052-289-1700
閔炳根=부광산업 대표. 052-278-7915
陽東健=(주)유화에너지 대표이사. 052-261-4940
劉成龍=울산정보통신고 서무과장. 052-201-0410
韓基大=울산공업사 전무. 052-268-8538
宋 實=현대공교 대표. 052-250-0348
朴相郁=부산대학교 공대 화공과 교수. 051-510-2393. 6월 8일 부친 별세
李相永=부산의료원 건강관리과 과장. 051-866-9031
李鎬國=동대2동 새마을금고 상무. 051-255-9072
黃昌煥=세림방재 대표. 017-847-9850
洪鍾秀=SK콜렉션 대표. 051-514-0113
張壽一=신성그래픽 대표. 051-865-2088
張壽奉=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金英玉=하단 오페라하우스 경양식 대표. 051-294-0995
金武源=해운대 보건소장. 051-749-4500
張淵植=동진콘테이너 이사. 051-266-8114
金正泰=남경캐미칼 대표. 011-575-2512
崔元一=(주)고려철강 대표. 051-317-1800
千斗甲=유니코상사 대표. 051-319-3931
千益柱=천경상회 대표. 051-256-9266
崔康登=정공산업 대표. 051-261-2911~2
崔翔惠=청천화원 대표. 051-647-6167
河斗錫=한아정공 대표. 051-202-0123
韓靈璇=한신엔지니어링 대표. 051-208-1245
黃光健=지성소아과의원장.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051-323-3505
제 19 회
金奉鎬=동화목재.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71-27. 051-316-5111
金聖晝=JAL 이사. 017-558-8850. (자택)부산시 북구 화명동 196 경남아파트 103동 803호. 051-938-8850
石武官=천연레프르타운.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51. 051-632-7890. (자택)051-642-0400
吳昊鐘=마산 동부경찰서장. 055-292-1211. 011-887-9122
尹文英=부산시 남구 감만2동장.

6면에서 계속

051-643-2303. (자택)경남 김해시 삼방동 691-2 한일아파트 1동 806호. 055-322-2541
 李炳浩=동기회 회장. (주)리호.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1033. 051-265-9777
 李昌敏=(주)가나상사. 부산시 서구 토성동1가 12. 051-244-2001. (자택)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20-10 삼환아파트 210동 1904호. 051-264-9790
 鄭基泳=(자택)부산시 서구 압남동 621-36. 051-253-6549. (사무실)051-245-3577. 017-873-3577
 黃性珍=황성진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산시 서구 부용동1가 66-1 영남빌딩 5층. 051-245-8001
 金石九=부산동부경찰서장. 051-465-6201. 011-887-9126
 金敬才=세영선박공업 대표. 051-418-4541
 金順鎬=(주)삼희스포츠 대표이사. 051-205-5852
 李基柱=부산은행 CIO. 051-646-3711
 金東奎=덕명수산. 051-416-1098

제 20 회

金信紀=동국제강 상무. 7월 5일 별세
 禹喆盛=7월 1일 서울에서 딸 결혼
 朴玉陽=양산시 노동부 근로감독과장으로 전보. 055-387-0803
 具然吉=경남섬유공업(주) 상무이사. 051-582-1551

제 21 회

김재익=잉크박사(프린트용 리필 잉크) 부산진점 개업. 부산시 전포동 화신아파트 앞. 051-819-4936
 吳巨敦=동기회장.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7월 8일 오후 3시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장녀 주영양 결혼

제 23 회

趙敦澈=별세
 徐勝煥=장녀 결혼
 金洪薰=해광플라워 개업. 051-805-2026
 朴守甲=동기회 회장. 부산노무사 소장. 051-465-4141
 金益坤=해동병원 의무원장. 정형외과 과장. 051-410-6820
 金宗圭=변호사. 대광오피스텔 902호. 051-242-5700
 朴文會=(주)아인 인터내셔널 대표. 051-257-2115
 朴武烈=(주)휘영 이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142-12. 051-802-0395
 朴宰完=국제통운(주) 컨테이너 터미널 이사. 051-630-5630
 徐榮秀=본부동창회 부회장. 송도 임페리얼 프라자 빌딩 대표. 051-241-3263
 元仁健=바른눈안과.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051-512-4148
 盧永培=바른눈안과.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051-512-4148
 李仁根=패션몰 미라지오 대표 (구 새부산예식장). 051-245-1001
 全容克=부영기공사 대표. 051-261-3688
 崔大日=성광물류(주) 상무이사.

051-465-7885.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8-5 태영빌딩 402호
 崔寅表=경동보일러 대리점 대표. 051-206-4343
 河鍾基=법무사. 051-256-7129
 許渡=영도구청 총무국장. 051-413-0771
 洪聖哲=백화 사랑채(음식업) 대표. 051-245-9694. 부산시 중구 남포동

제 24 회

九滋雄=(주)성광사 대표이사. 6월 11일 부친 별세. 055-388-1101
 金正權=아침노을 대표. 순금박 제품 전국총판 개업. 051-556-6910
 盧相佑=(주)문화통신공업 대표. 051-852-8851
 李紀殷=6월 29일 모친 별세. 051-325-5516
 曹永泰=북청물산 대표. 6월 30일 모친 별세. 051-502-4086

제 25 회

鄭鎮決=대은약국 대표. 6월 3일 모친 별세
 權太勇=WIZ사무기 대표. 051-310-3203. (본점)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E마트 도매상가 B-314호. (분점)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중소기업지원센터 B-1
 朴德培=동아약국 대표. 051-642-0183.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8
 辛京學=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506 선경아파트 7동 704호. 02-557-2845

제 26 회

許甲石=범천면옥. 051-642-8254. (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선경3차아파트 303동 901호
 趙顯君=(주)전인건축사사무소. 02-548-188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1-4 원일빌딩. (자택)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1 현대아파트 207동 2303호. 02-458-4197
 張珍=국제수산 대표. 051-264-3727~8.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483-1.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784-14 (24/4) 삼주빌라 601호. 051-743-5028
 金相勳=한국기독교장로회 주례 교회 담임목사. 051-316-5333
 朴點根=약수탕.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237. 055-329-2042
 魏勝男=부산시 금정구 선동 536-7. 051-581-9622
 李炳玉=한겨레치과.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해동빌딩 4층. 051-853-2511
 鄭東明=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아파트 102동 1603호. 051-514-6986
 申鉉成=대양개발(주). 051-631-1500
 金鍾宇=신광물산. 051-466-3621. 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66. (자택)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가락아파트 324동 503호. 051-292-3852
 尹興錫=부산시 동구 수정3동 동장. 051-294-1266.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180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906호
 鄭哲柱=동아대학교. 051-200-6602. (자택)부산시 사하구 다대



2동 120-10 삼환아파트 210동 2104호. 051-891-0747
 朴東憲=대한투자신탁 동래지점장. 051-553-0701. (자택)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577 연제그린아파트 101동 312호
 金廷坤=동흥실업 상무. 051-263-2341.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53 주공아파트 207동 707호. 051-896-0953
 金鍾洙=해운대고등학교 지학교사. 051-742-0313.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445-37. 051-864-8948
 趙一濟=부산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051-510-2618.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1-2 산호아파트 4동 505호
 趙萬石=한국의양범주협회 부회장. 051-743-1454.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신성아파트 106동 701호. 051-731-2662
 李鍾仁=이종인신경과. 부산시 중구 대청동3가. 051-466-8392.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우1차아파트 101동 1001호
 南仁熙=6월 19일 부산지방구도 관리청장으로 취임. 051-467-3217

제 29 회

金相玉=서남대학교 물리학과. 011-9437-0008. (자택)전북 남원시 향교동 하이츠아파트 5동 1308호. 063-633-7971. okfamily@komet.net
 金光根=한일영광(주). 02-332-7726. (자택)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1001호. 02-2647-3109. kkkim56@korea.com
 金道泰=한비상사. 032-575-4728. 019-353-4728. (자택)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임광아파트 709동 504호. 031-906-4728. dutai@hanmail.net
 金連洙=(주)삼테크. 02-3458-9261. (자택)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323동 903호. 02-479-0867. yskim@Samtek.co.kr
 吳世鎬=부산29회골프회 회장. 한일전기(주). 051-304-1828.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건영1차아파트 307동602호. 051-703-3497. hankor@dreamwiz.com
 李鎔洙=(주)우즈넷. 02-421-0732.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99-4. 02-421-0761. plypbndf@korea.com
 南基平=영남대학교 화학과. 053-810-2351. (자택)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행당대림APT 125동 601호. 02-2295-1273. kpnahm@ynuoc.yu.ac.kr
 金進暎=부산외국어대학 중국어과. 051-640-3020. 부산외대 교수 협의회 의장. (자택)부산시 해운대 우2동 삼호가든 5동 606호.

051-746-7819. jykim529@hanmail.com
 金玉山=중앙일보 제너럴솔루션 대표. 02-751-9240. (자택)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헤미리아파트 302동 406호. 02-408-9303. locksan@jongang.co.kr
 河龍奎=경남고등학교. 051-248-2181. (자택)부산시 사상구 덕포2동 오양힐타운 101동 1707호. 051-987-6522. sbh9@chollian.net
 金敏鎬=서울치과 대표원장. 051-702-2800. 011-573-8044
 李忠原=가이드공인중개사 소장. 051-752-7477. 011-9541-5509
 權晤永=구포 성심병원 정형외과. 051-333-2001~4. 011-553-1940
 鄭鍾琦=한국야쿠르트 동부산지점장. 051-631-3811. 011-290-1758
 金太源=KTF 사하지점 개업. 051-261-0811. 016-798-1093
 金泰浩=5월 27일 부친 별세
 李漢哲=한솔컴퓨터 개업. 051-637-0042. 011-880-2764
 趙 薰=대우조선 근무. 7월 4일 별세

제 30 회

崔巨勳=본부동창회 부회장. 최거훈법률사무소 변호사. 051-248-0700. 5월 6일 모친 별세
 具義本=(병원이전)구의본소아과 의원 원장. 부산시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주상가 302호. 051-612-2575. (자택)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180 반도보라아파트 102동 1007호. 051-292-4243

제 31 회

許一憲=동기회 감사. 주택은행 대연동 지점. 051-1588-9999
 金成圭=홍국생명 통영영업국장. 055-642-0002. 011-862-8538

제 32 회

朴斗在=경원금융 대표. (공장이전)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42-3 부산철강단지 12호. 051-317-0218
 朴淳煥=(주)한성크린텍 총무부 부장으로 승진. 02-512-9923
 趙鏞吉=일본 우즈노미야대학 교수로 도일
 朴相學=서강대 경제학과 금융경제학 전공 박사학위취득.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 02-3779-8153
 金大植=한양대. 일본오마니 대학 일어일문학 박사학위 취득. 051-320-1658
 辛國善=강원도 삼척시 교동 사서함 73-5 현역소령으로 부임
 車柱一=골프 (이전)경남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1000. 055-381-3212
 辛瀚國=본부동창회 이사. (주)대우자동차 부산제일영업소 소장.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980-2. 051-867-2130
 朴石百=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96 대림아파트 105동 202호. 051-702-1031
 金泰弘=한림학원. 051-637-6652
 姜基祥=의학박사 학위 취득
 李官雨=동창회 본부이사(주)JR 법인설립. 부동산건설사업부. 유통사업부. 인테리어사업부. 부산시 남구 대연6동 1763-1 원곡빌딩 301호. 051-632-8882

제 33 회

孔晋桓=대림유치원 이사장. 051-256-1843. 019-558-2410. (자택)부산시 북구 화명동 대림타운 201동 1501호. 051-363-3656
 金成學=좋은사람들 대표. 054-787-0987. 011-403-9383.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울리 250-81. (자택)054-788-4670
 朴明濟=삼성테크원 차장. 055-260-5329. 011-9705-0517. (자택)경남 김해시 내동 현대4차아파트 305동 1409호. 055-337-8421
 朴宗運=해남공고 교사. 061-535-4408. 011-207-0854. (자택)전남 순천시 연향동 부영아파트 105동 310호. 061-724-0854
 方永樸=거일수산 대표. 054-787-1137. 019-541-5400. (자택)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5리 1031-12번지 3층. 054-788-5256
 吳周彥=세광정보통신 부장. 051-818-3355. 016-339-0833.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의명빌딩 A동 2층
 尹泰雄=제일엔지니어링 차장. 051-973-2850. 011-223-1817.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당감4동 주공아파트 302동 1506호. 051-918-1817
 李龍弼=형제상사 대표. 053-425-8835. 011-509-7710. 대구시 북구 칠성1가 80번지 (자택)053-952-5508
 韓泰鎬=정동산업 실장. 055-854-0193. 011-9660-5989. (자택)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전원맨션 1동 410호. 055-852-1978
 朴眞佑=수원대학교 교수. 031-220-2123. (자택)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40-7번지 영주빌라 302호. 02-335-7704
 鄭英錫=제일은행 본점 부장. 02-3702-3262. 016-788-2191. (자택)서울시 양천구 목동 908-34번지 부영그린타운 3차 1614호. 02-655-2191
 河泰政=(주)에어맥정보통신 대표. 02-574-8012. 011-9057-8012. (자택)인천시 서구 신현동 180-18번지 해성빌라 C동 301호. 032-582-8019

제 36 회

金 漢=김막법률사무소 개업. 부산시 서구 부용동 대광오피스텔 1003호. 051-255-0402
 金贊哲=6월 19일 별세
 金鍾丘=6월 15일 부친 별세(고신대병원)
 白泰民=굿모닝성모안과 개원. 부산시 서면로타리 국민은행빌딩 6층. 051-809-3131
 朴振鎬=굿모닝성모안과 개원. 부산시 서면로타리 국민은행빌딩 6층. 051-809-3131
 鄭日炯=동기회 총무. (주)굿모닝 렌트카 개업.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502-1 마트월드 B-124. 051-310-0313
 鄭潤熙=지직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파로스오피스텔 지하. 대형극장식 LIVE BAR 개업. TV&교통방송 심의실장
 陽虎鎬=카리스마 개업. 부산시 중구 남포동 (구)별들의 고향. 051-246-2024
 李炳薰=계명목재.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52-2 산업용재유통상가 7동 233호. 051-315-6023.

▶시선을 집중시킨 가운데 결승대국을 방불케 한 제13회 A(오른쪽)-제16회의 3회전. 이 대국에서 제16회가 이채연동문(왼쪽 끝)의 선수끝내기 성공으로 이겼고, '우승기적'을 연출한 전기가 됐다.



手談속에 꽃핀 화합·결속

본부주최 제1회 용마바둑대회 화보·대국 상보



▲동기회의 명예선양을 위해 1회전부터 선수들이 불꽃 튀는 명승부를 쫓아내고 있다.



▲추호의 양보도 없는 4회전 결승대국.



▶조대제 본부회장(왼쪽)이 시상에 이어 폐회사를 하고 있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편안하는 동문들.

◀강철민 프로8단의 지도다면기.

先手끝내기 '우승기적' 연출

제16회, 13회A와의 3회전 대국서 승리잡아

하이라이트

끈질긴 패싸움 끝에 포착한 '선수끝내기'가 우승의 견인차가 됐다.

지난 6월 10일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1회 용마바둑대회 하이라이트는 3회전 제13회A-제16회의 5번조 명승부. 결승국으로 불린 이 대국은 '패싸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한판이었다.

백을 든 박홍표 선수(13회)는 '흑필패'라고 예견하며 이채연 선수(16회)가 승산 없는 패를 끈질기게 계속하자 귀찮다는 듯이 '이래도 되겠지' 하며 패를 해소해 버렸다.

순간 이 선수의 눈빛이 번쩍거렸다. '가만 있그래이, 이거 해볼 만하데이...' 하며 다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백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사이 흑은 '반상의 미로'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승리의 여신' 5집 끝내기를 발견했던 것.

역전드라마가 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백이 '앗차!' 하는 순간 반상은 계가쪽으로 가고 있었다. 흑은 물고늘어지며 한 집한집 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썼다.

백백히 물러선 관전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계가'가 진행됐고, 결

과 '흑 2집반승'이 확인됐다.

탄성과 한숨이 교차했다. 제16회측에선 "만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참관 동문들이 일제히 축하의 박수를 쳤다.

특히 제16회 주장 박종봉 동문(해화여중 교장)의 1~4회전 '판술이'가 선수들의 사기를 충전시켰고 '기적의 우승'이란 금자탑을 세우는 일등공신이 됐다. 박 동문과 상대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나 죽겠네..." 하며 포석단계에서부터 주눅이 들었다. 여기에서 강중국 김영부 김형석 박영수 배이영 신태규 여성국 옥윤석 이맹림 이명수 동문 등의 맹렬 응원도 활력소가 됐다.

제16회 동문들은 석패한 제13회 선배들 앞에 나가 위로를 했고, 선배들은 "너희들 꼭 우승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제16회 기우회장(신태규)과 총무(이명수)가 녹색우승기와 우승컵을 수상하자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졌고, 응원단장인 옥윤석 동문의 제안으로 상금 30만원 중 10만원을 집행부에 쾌척하자 "역시 16회는 잘한다"며 우리 같은 박수가 다시 장내를 가득 채웠다.

각 부별 순위·전적표

순위	중년부			장년부			청년부		
	회	전적	승수	회	전적	승수	회	전적	승수
우승	16회	4승	14	24회	4승	14	29회	4승	13
준우승	13A	3승1패	14	18회	3승1패	10	28회	3승1패	13
3위	11회	3승1패	12	22회	2승2패	13	27회	3승1패	12
4위	14회	2승2패	14	19회	2승2패	11	25회	2승2패	13
5위	15회	2승2패	11	21회	2승2패	10	31회	2승2패	10
6위	12회	1승3패	9	23회	2승2패	9	26회	1승3패	9
7위	13B	1승3패	4	20회	1승3패	8	30회	1승3패	5
8위	10회	4패	2	17회	4패	5	34회	4패	4

"특찬금 감사합니다"

△본부동창회=100만원 △대경용마바둑회=50만원 △제11회동기회(이사 김항근)=30만원 △조대제 본부회장(7회)=50만원 △한병조(13회·용마바둑회)=100만원 △김항운(13회 회장)=30만원 △이철세(13회·세양명

원징)=30만원 △문운용(14회·용마바둑회 수석부회장)=30만원 △강형남(17회·용마바둑회 부회장)=30만원 △강수경(21회·용마바둑회 감사)=30만원. △정상근(23회 부회장)=30만원 △백승업(27회·용마바둑회 부회장)=30만원.

"부산 기력 뛰어나"

강철민 프로8단 지도다면기

본부 용마바둑회 고문인 강철민 프로8단(11회)은 이날 3-5급 동문 6명과 특별이벤트인 지도다면기를 벌였다.

강 8단은 3급 정찬웅(15회·처수4점), 5급 이종길(17회·처수6점), 3급 강수남(26회·처수5점), 4급 배갑상 동문(26회·처수5점)에게는 각각 이겼고, 4급 이명수(16회·처수5점), 5급 강정호 동문(17회·처수6점)에게는 각각 졌다.

강 8단은 "부산 용마들의 기력이 서울보

다 뛰어나다"며 "경부동문교향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첫 대회 유망아마유단자 18명 7단 신병식 동문(24회) 최고수

본부 용마바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거행된 제1회 용마바둑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유망 아마유단자(7-5단)는 모두 18명이다.

이들 중 최고는 7단인 신병식 동문(24회)이며, 6단 3명, 5단 14명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제16회가 5단 3명을 보유해 가장 많은 유망 유단자 동기회로 나타났다.

印·刷·에·도 品·質·이 있·습·니·다!

“ 값싼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편집디자인에서!
 인·쇄·말·에서!
 신속 납기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대표 안효 (제28회)

高品質 印刷의 名家

인쇄마당

전화 (051) 464-6626

팩스 (051) 464-6826

E-mail : inshemadang@thrurnet.com

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30-3 (서라벌호텔빌딩)

· 상업 인쇄 : 명함·서식·전단·팝아트·카드·포스터·스티커
 · 정기간행물 : 단체회보·회사내보·신문·잡지·압권전문지
 · 도서 출판 : 회고록·지서전·연구논문·기념년보·회원명부